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기후 주간을 맞아 기후 변화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엠파이어 빌딩 챌린지 실시 발표

부동산 업계와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모방 가능하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솔루션 및 종합 에너지 효율성 업그레이드 추진 예정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목표 달성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엠파이어 빌딩 챌린지(Empire Building Challenge)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0년 주지사의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소개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기존 다세대 및 상업용 고층 건물을 개선하고 해당 구조물의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챌린지는 저탄소 개장 방식을 발전시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인 뉴욕주에 위치한 기존 고층 건물의 편안함, 지속가능성,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냉난방 솔루션을 추진합니다. 현재 이러한 건물은 발전 및 연료 연소를 통해 온실가스 4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국 최고 수준인 Cuomo 주지사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어젠다 달성을 추진합니다. 해당 어젠다에 따르면 뉴욕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감축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전국을 선도하는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엠파이어 빌딩 챌린지는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들과의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뉴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천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적 노력이라는 유산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장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건물 인프라는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솔루션을 채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적인 경제 활동이 발생합니다. 도시 친환경 위원회(Urban Green Council)가 2019년 시행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건물이 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 조치를 도입한다면 뉴욕시의 개장 관련 시장은 시장 기회는 2030년 경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2030년까지 1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문, 문 및 벽의 절연 작업, 에너지 효율적 기기,

비효율적인 덕트 작업 교체, 용광로 및 보일러 교체, 열 펌프 등 청정 에너지 기술 통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 솔루션 업체, 기업가 등을 유치하고 뉴욕주의 친환경 경제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성, 건강한 실내 환경 등의 부문에서 향후 10년간 에너지 부동산 투자의 표준을 세울 저탄소 시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and Research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의 사장 및 최고경영자 대행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부동산 업계, 개발자 및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뉴욕을 건물 개장 허브로 만드는 한편 뉴욕주의 건물을 완전히 탄소 중립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 달성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협동을 통한 이러한 노력은 고층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진전이며, 글로벌 빌딩 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채택하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건물 소유주가 탄소 중립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모색할 것이며, 최대 5,000만 달러를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기술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단계 및 2단계에서 다음의 경우 2,7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 건물 소유주 및 대형 상업 사무실 세입자는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를 통해 NYSERDA와 파트너와 협력을 요청할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엠포이어 빌딩 파트너(Empire Building Partner) 후보로 지정될 것입니다.
 - 저렴한 다가구 건물의 소유자는 선정 과정에서 추가 점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은 2020년 10월 22일이며, 선정 결과는 2020년 말까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하나 이상의 건물을 탄소 중립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유주 및 세입자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프로세스를 통해 선정된 파트너는 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고층 빌딩의 친환경 연료 대체와 관련이 있는 하나 이상의 주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저탄소 개장 솔루션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안서는 고층 빌딩의 친환경 연료 대체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확장성 및 타당성을 기반으로 평가받습니다.

- 제안서는 또한 건물 소유주의 의지와 건물 포트폴리오에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 선정된 제안서는 프로젝트 개발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최대 500만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시행 이후 남은 자금은 2단계 파트너 및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사용되어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총 1,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자격을 갖춘 제안자가 1단계와 2단계에서 입증된 솔루션 및 모델을 적용하여 2025년까지 다양한 건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비용 공유 인센티브의 형태로 최대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최초로 시행되는 이니셔티브이며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규 솔루션은 현장에서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 사례 연구가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건물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타 건물 소유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접근법, 매뉴얼 등을 개발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3단계가 실시되는 것과 동시에, NYSERDA는 목표 혁신 경쟁을 통해 저탄소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공모전인 엠포이어 테크놀로지 프라이즈(Empire Technology Prize)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 부문 파트너 및 선도적인 공공 혁신 전문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전문가들이 기술적 수요가 무엇인지 정의할 것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술 공모전은 혁신을 견인하고 새롭고 더욱 나은 저탄소 솔루션을 개발하여 이 중요한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뉴욕시의 고층 빌딩은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에는 세입자의 방해, 선불에 소요되는 비용, 초고층 건물의 크기와 규모 등이 포함됩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고층 빌딩의 탈탄소화 추진을 위해 청정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혁신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건물이 성공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탄소 중립 경제로 공정하게 전환하고자 주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 중 가장 최신의 조치입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고층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달성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 소유주와의 파트너십을 우선 과제로 취급함으로써 2050년까지 뉴욕의 탄소 배출량을 85 퍼센트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전국 최고 수준의 Cuomo 주지사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한편,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주정부가 완전히 건물우리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NYSERDA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6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건물의 탈탄소화를 추진합니다.

엠포이어 빌딩 챌린지는 저탄소 기술 혁신과 활용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활용하여 뉴욕 건물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선구자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건히 할 것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 기회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신청 방법은 <http://nyserda.ny.gov/EBC>를 참조해 주십시오.

뉴욕주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계획

Cuomo 주지사의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어젠다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뉴욕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퍼센트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 67개에 대한 39억 달러의 투자, 뉴욕 청정에너지 부문 일자리 150,000개 창출, 2035년까지 연안 해안 풍력 9,000 메가와트 개발, 2011년 이래 분산형 태양광 부문의 1,800퍼센트 성장을 비롯하여 전례 없이 증가한 뉴욕의 청정에너지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 퍼센트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의 이익의 최소 40퍼센트 이상이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 중 최소 35 퍼센트를 달성하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비티유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